



WHEN THE MOUNTAINS TURN BLUE  
YOUR BEER IS COLD AND READY FOR KICKOFF.



**COLD  
AND  
REFRESHING!**

THIS NFL SEASON,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WHAT COLD BEER LOOKS LIKE.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Miller®

NEW  
BOTTLE  
FRIDGE  
PACK

PACK ON

THE PROFITS





# KAGRO

## INTERNATIONAL JOURNAL

2011년 9월 / 10월

### 목 차

#### Officers

##### President

Yong Wong Han  
Delaware

##### Vice-President

Chang Hee Lee  
Philadelphia

##### Vice-President

Yoon Hyang Bae  
Los Angeles

##### Vice-President

Se ki kim  
Chicago

##### Vice-President

Gary Cha  
Washington DC

##### Vice-President

Philip Kim  
Canada

\*\*\*\*\*

##### Advisors

Ki Ok Kim  
Yang Il Kim  
Ki P. Chun  
David H. Kim  
Andrew Ku  
Ju Han kim  
David Kim

6. 11대 회장 인사말

9. 12대 회장 인사말

10. 총회소식

13. 각 지역 협회소식

20. 업계소식

24. 경제뉴스

31. 건강뉴스

38.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39. 포토 갤러리

#### Board of Directors

##### Chairman

Sung chil Heo  
N.Y. N.Y.

##### Vice-Chairman

Yong Woong Han  
Harrisburg

##### Vice-Chairman

Calvin Choi  
Arizona

##### Vice-Chairman

Chong han Bok  
UKBA  
Canada

##### Vice-Chairman

Ki Hwan Na  
Georgia

\*\*\*\*\*

##### Auditors

Jin Sup Hong  
Washington DC  
Seung Soo Lee  
Philadelphia, PA

# CONTENTS

## Board Members

KAGRO International  
Arizona  
LA California  
Central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Chicago  
Colorado  
Dallas  
Delaware  
Georgia  
Harrisburg  
Hawaii  
Maryland  
New York  
Oregon  
Philadelphia  
Tennessee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  
Calgary, Canada  
Edmonton, Canada  
Manitoba,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 Canada  
U.K.B.A Canada

- 6. President's Message
- 9. President's Message
- 10. KAGRO News
- 13. Chapter News
- 20. Industrial News
- 24. BUSINESS News
- 31. Health News
- 38. Board Members & Sponsors
- 39. KAGRO Photo Gallery

## Editorial Staff

**Publisher**  
Yong Wong Han

**Editor**  
Justin Lee

**Journal Advisor**  
Justin Lee

\*\*\*\*\*

Inter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 회장 이임사

Greeting of President



한 용 응 회장

존경하는 식품인 여러분 그리고 지구촌 한인 경제인 여러분;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시대적 부름에 몸을 맡긴지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어제 일처럼 손에 잡힐 듯 뚜렷한 나날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오늘까지 오면서 그 많은 나날들이 정말로 단 2년에 불과한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벌써 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아쉬움을 진하게 남겨 주기도 합니다.

사탕수수밭 이민이 시작된 지 1백년이 넘고 본격 취업이민으로 우리 선배들이 광활한 미 대륙 곳곳에 등지를 틀기 시작한지 반세기가 가까워지면서 본국의 부모형제 친지들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캘리포니아와 뉴욕과 시카고와 텍사스와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 등지에서 이민의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특히 미 전역에서 식품업을 통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지면서 작은 부를 통해 큰 부를 이루어 이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들 코메리칸 식품인들은 오늘날 해외 한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역사적인 소임을 완수하고 있으며 우리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그 한 가운데서 해외 한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강한 사명감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은 바로 우리 식품인들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고 이를 외부와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활자매체로 그 동안 우리의 얼굴 역할을 해 온 매거진에 새 기운을 불어넣고 이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총연 내 29개 챕터 가운데 인터넷 활용도가 가장 높은 필라델피아 챕터를 통해 총연 홈페이지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대폭 증가시켜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를 전세계 한인 경제계에 다시 한 번 널리 알리면서 지구촌 한인 경제를 위한 우리의 다짐과 사명을 리마인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 십 통씩 이어지는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소화하면서 깊은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와 국제 경제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두 번의 세계 한인상인대회를 통해서 아시아와 미주와 유럽 그리고 기타 지역의 경제력과 기여도의 차이를 실감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간 교류를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가 이미 알려진 대로 대기업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인력과 경험이 부족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품을 갖고도 해외시장을 개척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한국에 달려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접촉해 미국 시장을 개척하도록 제안하고 실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아직도 큰 보람으로 저와 함께 했던 총연 관계자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생소한 미국 시장진출에 소망을 갖고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200만 동포들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3억5천만 미국인 전체를 타겟으로 하라고 목표를 수정해 주면서 시장 조사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연이 일정부분의 역할을 제안하고 동기를 부여했던 일은 지금도 가슴 뿌듯한 발자취의 하나로 총연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세계 한인상인대회를 통해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재단과 오랜 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긴 기억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재미 동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의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인 의료 투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내 우수 대학병원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대폭 할인된 가격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혜택이 20만 식품인 뿐 아니라 200만 전체 미주 동포들을 위한 범동포적 사업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 인하대 의료원 그리고 대구 계명대 동산 의료원.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가 사실상 전미주 한인들의 경제 활동을 대표한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한국의 기업들과 각종 단체에서 협조를 요청해 왔을 때 우리는 지나치게 앞서지도 말되 주어진 시대의 소명을 확인하면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대처하자고 결의하고 내적인 에너지를 다졌습니다.

총연이 주어진 소명을 실천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각 지역의 한인 경제인들이 총연에 가입을 신청해 텍사스와 중가주 챗터가 새로운 식구가 되고 지역별 문제가 있던 일부 챗터들을 재정비한 것은 전국 단위 연합회 가운데서도 유례가 없는 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지역별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겹도는 과정을 10여 년 동안 목격한 사람으로서 두 개의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상호협조를 꾀하면서 안정과 균형을 취한 것은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경제를 위한 윈윈 작전으로 평가되며 동포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 가슴이 뿌듯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경제는 나아진다는 뉴스 미디어의 분석보도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더 하락하는 진기한 현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블 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절망적인 보도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스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임박설 등 국제 경제가 어두

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한국은 대기업은 살찌면서 서민들은 뼈만 남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가고 311지진 피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일본은 세계 경제를 급락시키는 원인이 될지 몰라 또 다른 불안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미국의 내수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칫하면 외화내빈의 지경에 빠질지 몰라 표면상의 활기 뒤에는 살얼음을 걷는 듯한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긴장감이 상존하는 남북관계는 또 하나의 걸림돌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세계 경제, 국제 정치에서 미주 동포들은 물론 전체 한민족이 약진하는 동력 엔진이 바로 우리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라는 사실을 단 한시도 잊지 않고 바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난 2년이 이틀이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른 면으로는 20년 보다 더 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일들 가운데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일들이나 마음 속에 담아 두었던 구상들이나 우리에게 꼭 착수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던 일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아쉬움과 더 깊은 소명은 한인 경제를 새로운 단계에 올려 놓을 허성칠 회장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에게 보내 주셨던 뜨거운 사랑과 깊은 관심을 허 회장님께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좀더 잘 할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와 성찰만 가득 합니다. 그래도 뿌듯 한것은 각 협회의 회장님들과 임원님들께서 꾸준히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일해 주신것에 감사 드리며 또 어려운 환경속에서 묵묵히 열정적으로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좋은 일이건 언짢은 일이건 제게는 모두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일일이 답을 하거나 만나 뵙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서로를 배려 하면서 도 좋은 협회를 만들어 가는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더 크게 남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그런 징검다리 가운데 돌 하나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 돌의 역할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그리고 그 징검다리를 건너 새로운 세계를 향해 질주 해주신 회장단 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필요 하다면 앞으로도 작은 징검다리의 돌 하나의 역할을 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 하시고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11대 회장 한 용 웅 배상

# 회장 취임식

Greeting of President



제12대 회장 허성철

존경하는 북 미주 kagro International 챗트 고문님, 회장님, 부회장님,  
이사장님, 임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일궈낸 민족으로 세계에 우뚝선 한국인의 기개로 맨손으로  
태평양을 건너와 오늘의 식품 총 연합회 회원들의 뜻심과 근면 성실로 북 미주  
세계각국 시골 구석구석 까지 우리 동포들의 식품 주류상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문님 전직 회장님 회원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이루지 못할  
헌신적 희생을 통해 kagro Internatinal 이 거대한 조직으로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는 세계속의 식품 주류상의  
실체를 나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날의 본보기로 더욱더 우리 총연의 엄청난 위상을 북 미주 시골 구석구석 까지 한인 식품 주  
류상 들의 면모을 일신 시키면서 더욱더 전진 할수있겠끔 회원들의 도움없이 주류사회에 진출 할수 없읍  
니다.

협력과 신뢰을 바탕으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엄청난 구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산발적인 실행사  
만 그쳐오던 총연은 다시한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더욱더 강화하여 경기위기 극복의 희망을 품  
고 불황 타계를 위한 문제해결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작게는 본인 스스로 나아가서는 우리 총연 모두  
가 동참하여 한인상인들의 엄청난 위상을 북미주류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한인상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파트너 라고 말 할수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다시 한번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으로 격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 연합회  
제12대 회장 허성철 배상

##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45차 라스베가스 총회 열기 높다

오는 9월27일부터 30일까지 라스베가스 에서 열리는 45차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총회에 참가를 신청한 대의원 수가 90여 명에 달하는 등 역대 총회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경제가 디플트 위기에 이어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더블 덩의 기로에 놓이는 등 하루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안개 상황에 놓이자 앞으로 한인 경제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 등을 이번 총회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각 지역 대의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미주 한인 경제를 위해 남다른 족적을 남긴 한용웅 회장의 이임식과 혼란기에 앞으로 2년 동안 총연을 이끌어 갈 허성철 회장의 취임식이 함께 열려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총연이 나갈 방향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참가 대의원 수가 많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필라델피아 챕터의 우완동 회장은 “세계 경제가 요동 친 지난 2년 동안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 한용웅 회장이 임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임원들을 대동하기로 했다”며 “총연 총회는 임원들에게 한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안목을 넓히고 다른 지역 대의원들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경제인들의 큰 잔치”라고 설명했다. 한용웅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총연을 이끌어 가며 미주 한인 경제를 세계 한인 경제와 접목시키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미국으로 이끌어 지구촌 한인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한편 한국의 유명 의료원들을 미주 동포들 옆으로 오게 하는 등 안팎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며 “20년 보다 길었던 2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를 보다 짧은 2년이기도 했다”고 재임 기간을 회고 했다.

한용웅 회장은 평소 총연 총회의 참가 대의원 수가 평균 70명 선을 유지하지만 이번 45차 총회의 경우 허성철 회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 회장에게 힘을 돋아 주는 총연의 전통이 참가 대의원 수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언제나 단결하는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의 전통을 살려 오는 11월에 열리는 10차 세계 한상대회 에도 많은 식품인들이 참석할 수 있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용웅 회장은 특히 세계 한인상인대회는 지난 수 년 동안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가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가꾸어 온 지구촌 한인 경제의 성장 동력이라며 한상 대회를 다변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해외 경제인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차 세계 한인 상인대회는 오는 9월까지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총연에서 각 챕터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한상 대회 미국에서 열자”

##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한상대회의 탈 한국화 강조

세계 한인 상인 대회가 연륜을 더해 가면서 지구촌 한인 경제를 잇는 역할에 충실해지자 한상의 탈 한국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해로 10회를 맞는 세계 한인 상인대회가 매년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제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관행이 이어지자 해외 한인 경제인들 사이에 “탈 한국화로 명실상부한 지구촌 한인 경제의 중심점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한상대회를 통해 지구촌 한인 경제인들과 경제 단체들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해 온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와 세계 한인 무역인협회 등에서 한상의 변화를 촉구하는 다양한 소리를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용웅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장은 “세계 한인 무역인협회에서 한상을 해외에서도 열자고 주장한 바 있으며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히고 해외에서 한상대회를 열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에서 첫 대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 회장은 이미 국제 한인 무역인협회에서 네바다 주의 라스베가스에서 13차 한상대회를 열자고 희망을 피력했으며 미국 내 한인 경제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재외동포 재단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용웅 회장은 지금부터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면 충분히 세계 대회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경제외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해 재미 한인 경제가 몇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웅 회장은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한상의 탈 한국화 방안에 대해 세계 한인 무역인협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미 지구촌 주요 한인 경제 지도자들과 관주도 한상에서 탈피해 민주도 한상을 열자는 논의도 심각하게 오고 갔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한상이 지구촌 한인 경제의 첨병 역할을 뚜렷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는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한상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한인 경제인들과 경제단체에 대한 종합적 및 국지적 네트워크 작업이 하루 빨리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등 조직력과 단결력이 강한 전국 규모의 단체가 우선적으로 네트워크 작업을 마무리 지어 소규모 단체와 개인들을 잇는 포스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재외동포 재단 등 한국의 관련 기관들의 행정 및 기술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KAGRO INTERNATIONAL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 연합회 제45차 Las Vegas총회 일정표 (9월 27일 ~ 30일)

날 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9월 27일 (화요일)	10am~5pm  5pm 이후	각 지역 대표단 도착 귀빈 호텔 Check in 시작 각 회장단 도착 Card및 식권 지급	
9월 28일 (수요일)	9am 9:30am 10:00am 10:30am  11:00am 11:30am  12:00pm  1:30pm  3:00pm  7:30pm	아침 식사 제 45차 총회 개최 선포 총회 환영사 귀빈 축사 각 지역 참석자 소개 지난 회의록 낭독 재무 보고 업무 보고 허성칠 회장 인사말 및 임원진 발표 차기 집행부 감사 선출  중 식  스 폰 서 시간  협회 사업 보고 안전 처리 차기 개최지 선정 폐회 선언 회장 이 취임식	한용웅 회장 허성칠 이사장  김영필 부회장 송영석 사업부회장 이승수 감사 홍진섭 감사 허성칠 신임 회장 한용웅 회장주관  Miller Brewing Co Bush Inc. Coca Cola USA 한용웅 회장
9월 29일 (목요일)	8am	아침 식사 단체 관광및 골프	송영석 사업 부회장
9월 30일 (금요일)		각 지역 회장및 귀빈 출발 호텔 Check Out	

# CHAPTER NEWS

## 볼티모어 한인 식품협회

### ❖ 한인들 쌓인 불만 쏟아냈다

“가게 앞에 인근 주민들이 투기한 쓰레기로 인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황정연 KAGRO 고문)

“상인들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게 직접 연락주세요.”(마크 워 볼티모어시 공공사업국 쓰레기 처리과장)

30여명의 한인상인들은 쌓인 불만을 쏟아냈고,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볼티모어시장을 비롯 각 기관 대표들은 시정 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14일 저녁 볼티모어 시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 사무실에서 포럼을 갖고, 한인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포럼에는 프레더릭 빌펠드 시경국장을 비롯 거스너 어 구스투스 시장실 대민국장, 주안 거티어레스 보건국 환경보건과장, 데니스 스미스 중부경찰서장 및 교통국과 공공사업국의 쓰레기 및 상하수도과장 등이 동석, 상인들의 민원에 답변을 했다.

상인들은 한인 피살 사건들과 관련 시내 주요 도로 및 쇼핑센터의 감시카메라 점검 및 증설을 건의하는가 하면, 법적 권한이 없는 경찰이 소방규정 위반을 이유로 주류업소의 영업을 임시정지 시킨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또 소매업소 플라스틱백 사용 규제와 관련 상인들이 재활용 수거업체에 월 49달러씩 납부해야하는 점을 시정할 것과 업소 주변의 불법 노점상 단속을 요구했다. 담당관들은 노점

상들은 업소 주변에서 300피트 떨어져 영업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311'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광희 메릴랜드한인회장은 고 임종완씨 피살사건의 신속 해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기간 공식 중인 시장실 한인 담당관의 조속한 채용을 촉구했다. 강진욱 KAGRO 고문도 수년전 김남현 전 형사의 퇴직 이후 없어진 시경 한인담당관의 부활을 요구했다.

빌펠드 시경국장은 “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경찰과 커뮤니티, 상인들의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으며, 값싼 시가 등 마약 관련 용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 포럼은 KAGRO가 시장에 요청해 마련됐다. 이광서 KAGRO회장은 “다음 기회에는 더 넓은 장소에서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건의 및 시정 요구 사항을 강력히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에 한인 등용을 늘리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 상인들 반발 음료세법 계획보다 1년 단축 추진

볼티모어 일원 한인 상인들을 비롯 비즈니스 업계의 강력한 조세저항을 받고 있는 음료세 법이 당초보다 1년 짧아진 2년간 시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벨린다 커너웨이(7지구)와 와렌 브랜치(13지구) 시의원은 18일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음료세 2센트 부과법에 대해 기간을 1년 줄이도록 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음료세 부과법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음료세 2센트 부과법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음료수에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작년 시행 초기에도 한인 비즈니스 업계 등은 불황으로 가뜰이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 업소는 음료세 부과법이 시행되면서 작년 한해 동안 전체 판매액이 전년에 비해 무려 50만 달러 가량 줄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메릴랜드 한인 식품 주류협회(회장 이광서)는 최근 회원들을 중심으로 음료세 부과법을 뒤집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2000여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등 조세 저항 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시 정부는 음료세 부과법 적용이 1년 단축될 경우 기존 서비스, 즉 청소 및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480만 달러를 삭감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 도매상과 공조, 불황 극복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는 회원업소들의 불황 타개를 돕기 위해 지역 도매상들과의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이광서 회장과 박종섭 이사장은 지난 29일 볼티모어 시내 한인 식품도매상인 이스턴 푸드사를 방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속에 케리아웃이나 델리를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해 공동구매 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며 “저렴한 가격 및 신속한 배달 등으로 회원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스턴 푸드에서는 사장과 부사장, 세일즈 매니저까지 참석, 회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며, KAGRO 또한 한인 도매회사들의 성장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 업체의 홍보 앞치마 등에 KAGRO 문구도 함께 넣어 불경기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 등은 이날 책 영 시의장과 만나 수도요금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오는 9일(화) 오전 9시 볼티모어 한인노인센터에서 상하수도 담당관과 상인들의 면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원들은 관련 서류나 영수증 등을 지참, 참석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 ❖ 맥주 도매상 견학 추진 KAGRO, 가을 야유회 대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는 맥주도매회사와 한인주류상인과의 교류를 통해 맥주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인들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광서 회장은 오는 10월경 KAGRO 회원들이 지역에 하이네켄 맥주를 배급하는 리퍼블릭 내셔널사를 견학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참여 저조로 수년째 중단된 야유회 대신 이 행사를 구상했다며, 도매회사 웨어하우스를 둘러보고, 맥주 제조 과정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다음,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오찬과 함께 사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회장은 박종섭 이사장과 함께 21일 낮 제섭 소재 이 회사 웨어하우스를 방문, 빌 모셔 한인 담당 매니저 등과 만나 행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논의했다.

이 회장은 이 행사에 앞서 9월에 KAGRO 주류업 회원 90명을 초청하는 사은잔치가 이 회사 후원으로 열린다고 전했다.

##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협회

### ❖ 인스펙션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2009년 이후 토요일 일요일에도 인스펙션 실시

늦더라도 반드시 나오니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적지 않은 회원들이 인스펙션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

정기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언제 인스펙션을 받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식품업소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인스펙션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스펙션에 관한 필라델피아 위생국의 규정은 정기



인스펙션의 경우 12-15개월 사이에 한 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기적으로 급작스럽게 인스펙션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는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왔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정기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지나도록 인스펙터가 오지 않는다고 협회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회원은 2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오더라도 인스펙션은 꼭 오니까 항상 긴장하고 준비상태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009년 이후로는 인스펙션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스펙터들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평일에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인스펙션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스펙션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 위생 교육 시간에 강의 받은 대로 인스펙터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필라델피아 인스펙터들의 경우 신분증을 대부분 목에 걸고 다니며 업소에 들어올 때 자기 손으로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Can I see your ID please?" 라고 하면 신분증을 보여 줄 것입니다.

인스펙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 인스펙션에 실패하면 재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재 인스펙션 비용 \$195를 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 인스펙션을 받을 때 인스펙터가 첫 인스펙션시 지적 사항을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첫 인스펙션의 지적 사항은 지나치고 새로운 것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억울하다고 회원들이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인스펙터는 첫 인스펙션이나 두 번째 인스펙션이나 또는 불시에 실시하는 인스펙션이나를 막론하고 눈에 띄이는 부분을 모두 인스펙션하고 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재 인스펙션이라고 첫 인스펙션의 지적 사항만 완벽하게 하고 다른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재 인스펙션에도 실패하면 코트에 가야 하는데 이때 인스펙션

을 한 번 더 받습니다.

코트에 가기 전에 받는 세 번째 인스펙션에서 통과하면 코트에 가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인스펙션에도 실패하면 코트에서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코트에서 극단적인 판결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는 코트에서도 "시민들의 위생을 위해 시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개선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스펙션은 첫 번째 인스펙션 때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코트에서 내리는 최악의 판결은 업소를 폐쇄시키는 것입니다.

### ❖ 식품협회 8월 위생세미나 개최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회장 우완동)가 오는 8월16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교육은 오후 7시부터 서재필기념센터 강당에서 열리며 기존 수료증을 취득한 회원들에 한해 참석할 수 있다.

식품인협회 우완동 회장은 "수료증 소지 여부에 대한 필라시 위생국의 단속이 매우 엄격한 만큼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등록마감은 8월 6일까지 인터넷과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협회 측에 따르면 필라시 당국의 위생 단속이 여전히 강력해 업소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최근 필라시 위생국의 검열로 인해 업소 일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검사 시 '푸드 핸들링' 자격증이 없는 경우다.

이들 업소는 검사를 받을 당시 자격증 소지자가 없으면, 즉각 가게 문을 닫는 조치를 당했다. 다음날 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 서 검사관에게 연락을 해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또 검사관이 갑자기 들이닥친 한 식당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당장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물 온도가 맞지 않거나 하수구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 등으로 즉각적인 영업정지를 받아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이나 업주와 종업원의 분쟁이 허위 고발로 이어져 뜻밖의 위생국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우 회장은 "2년 전부터 검사가 강화됐지만 해를 더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온도와 개인위생, HACCP 이행 여부 등이 중요하다"가 강조했다. 우 회장은 또 "인스펙션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중점 단속 포인트를 협회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만큼 적극 참여해 귀중한 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 LA 한미식품상 총연합회

### ❖ 세일즈택스 1% 내려간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기본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7.25%로 인하된다.**

판매세 1% 인하는 지난 2009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던 법규가 만기됨에 따라 세율이 원상 복구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지역별로 판매세에 차등이 있는데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현재 9.25%인 판매세가 8.25%로 인하

된다. 이외 베이지역과 북가주 한인 거주 주요 카운티를 보면 나파 7.75%, 마린 8%, 몬트레이 7.25%, 소노마 8%, 솔라노 7.37%, 산마테오 8.25%, 새크라멘토 7.75%, 샌프란시스코 8.5%, 알라메다 8.75%, 콘트라 코스타 8.25% 등으로 각각 1% 인하된다.

한편 일부 도시의 경우 속한 카운티보다 높은 판매세를 징수하고 있는 경우에도 1% 인하된다. 예를 들어 알라메다 카운티의 판매세가 9.75%에서 8.75%로 인하되지만 알라메다 카운티에 속한 유니언시티의 판매세는 10.25%에서 9.25%로 인하여 여전히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가장 비싼 판매세를 내야한다.

판매세를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아니타 고어 대변인은 "주의회가 별도의 세금관련 긴급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판매세가 1% 인하된다"며 "각 소매점에 공문을 발송해 판매세 인하여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알리고 있지만 한시적인 세금인상이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업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식당과 슈퍼마켓 등 소매점들도 판매세 인하여 대비해 계산기 시스템(POS)에 입력된 판매세율을 변경하는 등 소비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7월1일 전에 물건을 구입하고 7월1일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매점은 소비자에게 구입 당시의 판매세율에 근거해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판매세는 조세형평국 사이트 [www.boe.ca.gov/cgi-bin/rates.cgi](http://www.boe.ca.gov/cgi-bin/rates.cgi)에서 확인할 수 있고 [www.geotax.com](http://www.geotax.com)에서는 주소를 입력하면 정확한 판매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9년에 0.25% 인상됐던 캘리포니아의 소득세도 인상 전으로 환원된다. 예를 들어 1년 수입이 4만7,055달러인 개인의 경우 7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소득세율이 9.55%에서 9.3%로 인하된다.

또 7월1일을 기해 자동차 등록비가 현행 차량가치의 1.15%에서 0.6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차량국은 7월1일 이후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차량 등록비 납부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유예기간에는 벌금과 단속이 면제되기 때문에



등록 갱신기한 30일을 초과해야만 벌금이 부과되고 경찰의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 주정부 전기 절약 프로그램

'주정부 전기 절약 프로그램' 공사비 과다 청구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남가주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KAGRO 캘리포니아)는 14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허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피해를 주장하는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태는 협회가 추천한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일부 회원업소들의 주장으로 불거졌다. 이어 몇몇 업체는 협회측에 항의해 환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불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불만이 또 다시 불거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회원은 "시공업체 측에서 세일즈맨의 재량과 업소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고 해놓고선 불만을 제기한 업소에만 환불을 해 준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용이 300~400달러씩 차이가 나는데 협회 차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인 이경태씨도 "처음에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공짜로 할 수 있던 말만 믿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워킹 쿨러 문 7개만 무료더라"며 "우리업소 워킹 쿨러의 문이 14개인데 나중에 청구서를 보니 무료라는 문 7개까지 청구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협회가 추천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한 회원업소는 40군데나 된다.

허중 회장은 "회사 측에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별한 대책이 없을 시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말했다.

대행업체를 대신해 협회원들로부터 공사비 견적서를 받았던 이지니 사무장 역시 "제가 환불해 주었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를 위해 도움을 주었을 뿐 회사 측이나 그 어떤 곳에서도 돈을 받고 돌려준 일이 없다"고 말했다.

### ❖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 LA카운티 일부 1일부터

자체 시정부가 없는 LA카운티 내 지역에서 1회용 플라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8일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마켓들의 1회용 플레

스틱 봉지 무료 배부를 금하는 이번 새로운 조례에 대해 해당 지역 내 주요 마켓과 주민들이 유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라크레센타와 로렌하이츠, 발렌시아 등 별도의 시정부가 없는 LA카운티 지역에서 플라스틱 봉지 무료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2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소매업소로 확대 실시된다.

## 뉴욕 식품협회

### ❖ 뉴욕주가 불법 유통 담배와의 전쟁에 나선다.

뉴욕주경찰과 뉴욕주세무국은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또는 타주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담배의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당국은 이를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해 담배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납세필 인지(Tax Stamp)가 부착되지 않은 불법 담배유통 경로를 파악해가며 점차 불법 담배를 매매하는 개인들로까지 단속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정부가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밀수된 외국산 담배와 타주 담배, 또한 불법 제조된 가짜담배들이 뉴욕주 전역에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주정부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주정부는 최근 주내 357개 소매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1만9,744개 보로에 달하는 불법 유통담배와 함께 주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시가 2만4,882개피, 담뱃잎 33.75파운드 등을 압수했다. 로버트 두피 뉴욕주 부주지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소 2,70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업소 셔터, 내부 70%이상 보여야

뉴욕시 각 업소 출입구에 대한 새로운 철제 셔터 설치 규정이 이달 1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어 한인 업소들도 관련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

새로운 출입구 철제 셔터 규정은 업소의 내부가 최소 70% 이상 보이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우선은 새로 개업하거나 셔터를 새로 교체하는 기존 업소에 먼저 적용된다. 하지만 2026년

7월1일 이후로는 기존 업소들도 안이 보이지 않는 셔터가 설치돼 있다면 모두 새 규정에 맞춰 교체해야 한다. 이후 단속에 첫 적발되면 250달러, 두 번째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는 일명 '새로운 업소 출입구 규정(New Store Gate Law)'이 낙서와의 전쟁에 나선 뉴욕시의 환경개선 및 안전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규정은 낙서 증가가 범죄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 앤소니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이후 2009년 피터 벨론 주니어(민주·아스토리아) 뉴욕시의원이 시의회에 다시 제안해 통과된 것이다.

벨론 주니어 시의원은 "업소 내부가 보이지 않은 기존의 철제 셔터는 불법낙서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범죄의 표적이 됐다"며 "내부가 보이는 새로운 철제 셔터는 환경개선과 더불어 기물파손 및 범죄율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새로운 셔터로 교체한 일부 업주들은 "셔터 교체 전에는 낙서를 지우느라 애를 먹었는데 교체 후 낙서가 사라진 것은 물론 지역환경까지 좋아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 ❖ 뉴욕주서 목욕소금 못판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목욕소금 판매 및 소지가 금지되고 구토 유발제인 '이피캡 시럽(Ipecac Syrup)' 구입도 제한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5일 목욕소금 판매·유통·소지 금지법안과 이피캡 시럽 통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관련법이 즉시 발효됐다. 목욕소금에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말하는 능력과 전반적인 육체활동을 증가시키는 약물군 '암페타민(Amphetamine)'이 포함돼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암페타민은 필로폰이나 코케인 등 마약 제조성분으로 환각과 환청, 환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남용하면 가슴통증과 혈압과 맥박 증가로 사망할 위험이 크다.

그간 목욕소금은 일반 상점에서 20~40달러에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터라 이를 녹여서 흡입하거나 주사로 맞는 등 사실상 마약 대용으로 사용돼 왔다. 유독물질을 먹었거나 약물을 과량 복용한 응급상황에서 사용됐던 구토유발제 이피

캡 시럽은 청소년들 사이에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돼 왔다. 하지만 남용하면 거식증과 폭식을 하고 토하기를 반복하는 식욕 이상 증세를 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통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법안 발효로 앞으로 이피캡 시럽은 일반 진열장이 아닌 약국 매니저만 꺼낼 수 있는 별도 장소에 보관되며 약사와 1차 상담 후 구입이 가능하다.

## 워싱턴 D/C 식품협회

### ❖ 월마트 "워싱턴엔 곧 4개 입점 교포 상인들 초긴장"

미국에서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월마트는 불가사리와 같은 존재다. 월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반경 약 8km 내의 상점(스몰 비즈니스)들을 거의 모두 잡아먹는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월마트의 위력이 배가된다.

내년에 4개 이상의 월마트가 한꺼번에 들어설 예정인 워싱턴의 분위기는 흥흥하다. 월마트가 워싱턴에 열 계획인 매장 규모는 모두 3만7000여㎡나 된다. 워싱턴에는 2000여개의 소규모 상점이 있다. 이들은 조만간 전업을 하든지 떠나야 할 처지에 몰렸다. 소규모 상점은 한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업종이어서 워싱턴 인근 한인 사회도 월마트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는 매장 한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 형태입니다. 취급하는 품목도 식료품, 주류,



잡화 등 모든 것입니다. 게다가 연중무휴 24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다른 상점들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의 구멍가게들이 월마트에서 물건을 받아다 팔아왔는데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워싱턴 한인주류·식품업협회의 어윤환 회장은 월마트가 들어설 경우 첫달부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1년 이상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600여개의 한인 소유 소규모 상점이 모두 같은 운명이다.

월마트는 대규모 매장답지 않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취급하는 복권 판매는 물론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수표 현금교환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 월마트가 존재하는 한 ‘틈새시장’은 없는 셈이다. 시당국은 월마트 입점으로 세수와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도 이미 대부분 월마트 입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 한인주류·식품업협회는 인도·에티오피아 등 다양한 국적의 자영업자들과 연합해 ‘월마트 프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탄원서를 보내고 시위도 하고 대책 협의도 한다. 그러나 어 회장의 표현대로 ‘달걀로 바위치기’다. 지금으로서는 월마트 매장을 1개라도 줄이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이민 1세대들이 선택한 업종이 바로 소규모 상점입니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가게를 운영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등 오늘날 미국 한인 교포사회를 일군 초석이죠. 하지만 이젠 다 옛날 얘기가 될 겁니다.”

## 시애틀 식품협회

### ❖ 베트남 밀수담배 6,500보루 압수

연방 주류총포단속국(ATF)은 베트남에서 밀수입된 필립 모리스 담배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3일 퓨짓 사운드 지역의 14 곳을 급습, 말보로 레드, 555s 등 담배 6,500 보루(카튼)를 압수했다.

ATF 시애틀 지부 마크 레이저 대변인은 수사팀이 총 14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애틀, 타코마, 켄모어, 쇼어라인, 켄트 등의 가정집·사업장을 동시 급습해 담배 6,500보루, 현금 20만달러, 차량 5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레이저 대변인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보루 당 7~9달러에 팔리는 필립 모리스 담배들이 우편을 통해 대량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가 지난해 봄 주류통제국(LCB)을 통해 입수돼 첫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 밀수입담배들은 보루 당 30.25달러의 워싱턴주 담배세와 10.07달러의 연방세를 모두 납부하지 않고 정가보다 20~30달러 이상 싸게 팔리고 있었다.

레이저 대변인은 6,500보루에 해당하는 탈세는 26만 2,000여 달러에 이른다며 2008년부터 계산하면 총 2,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사로 체포된 업주들은 없었으나 ATF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이 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 Industry News

## Walmart Backs Off Wine Vending Machine Deal

In Pennsylvania, the retailer blames “mechanical concerns” over its change of plans, which comes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Wegmans ended its wine vending machine program.

HARRISBURG, PA - In a letter last week sent to the Pennsylvania Liquor Control Board (PLCB), Walmart said it plans to pull out of a deal to install 23 state-controlled wine vending machines in its Pennsylvania stores, the Associated Press reports.

A company statement released this week attributed the change of plans to “mechanical concerns” over the 10-foot high machines, which are part of a program that some had touted as a way to add customer convenience to the state’s antiquated liquor laws.

“Walmart will continue to work with PLCB officials to look at ways to modernize the state’s liquor and wine distribution system and provide Pennsylvanians with a convenient shopping experience,” the company said.

Alan Fellheimer, a lawyer representing the contractor for the machines, said mechanical problems affected less than 0.5 percent of

transactions. “They never installed them, so I don’t know what they base that on,” he said.

Earlier this year, Wegmans Food Markets Inc. pulled out of an agreement with the PLCB to sell wine through machines at 10 of its stores, citing problems with the machines and customer complaints.

## Top Tobacco, Republic Tobacco Take Action to Enforce Trademark Rights

The two tobacco firms filed suit in federal court against several companies, alleging trademark infringement, unfair competition and trafficking in counterfeit goods.

GLENVIEW, ILLINOIS - Top Tobacco, L.P. and Republic Tobacco L.P. filed suit last month in federal court in Chicago against several companies, including gas stations, alleging trademark infringement, unfair competition and trafficking in counterfeit goods.

The lawsuit is part of the tobacco companies’ “vigilant” anti-counterfeiting campaign to protect its “TOP” trademarks.

The lawsuit alleges that the defendants have been knowingly selling in the Chicago area counterfeit TOP-brand cigarette rolling papers that were illegally produced in China with the intent of confusing and deceiving the public.

Top Tobacco and Republic Tobacco are seeking to enjoin the defendants from any further unlawful activity regarding the use of its TOP trademarks and to recover damages, costs and fees.

“TOP Tobacco and its predecessors have been in the cigarette market for more than 100 years and the mark TOP is well known among merchants and customers,” said a company spokesperson. “TOP-brand products are manufactured and sourced exclusively for, and under the direction of, Republic Tobacco, and such products are sold only through Republic Tobacco. Therefore, we maintain a vigilant anti-counterfeiting program to protect against violations of the TOP Marks, and this action is a firm reminder that such unlawful conduct will not be tolerated.”

## WWE and 7-Eleven Partner for a Third Year

The partnership marks the first time 7-Eleven has had three consecutive summer promotions with one entertainment property.

DALLAS & STAMFORD, Conn. - WWE and 7-Eleven Inc. announced that after two successful partnerships, the companies will get back in the ring for the month of August to promote WWE collectible Slurpee and Super Big Gulp cups and straws. This

marks the first time 7-Eleven has had three consecutive summer promotions with one entertainment property.

7-Eleven will offer the exclusive collectible cups and straws highlighting WWE’s biggest Superstars and Legends including John Cena, The Rock, The Miz, Stone Cold Steve Austin, Rey Mysterio, Randy Orton, Shawn Michaels and “Rowdy” Roddy Piper. The cups feature action shots of each Superstar and Legend from WWE All Stars, the latest WWE video game released by THQ.

Consumers who purchase a Slurpee beverage and a Twix candy bar may enter to win an all-expenses-paid, VIP trip to WrestleMania XXVIII to be held at the Sun Life Stadium in Miami on Sunday, April 1, 2012, featuring The Rock vs. John Cena in the main event.

All 7,400 7-Eleven retail locations in the U.S. and Canada will have a significant WWE presence as the cross-promotional partnership begins today. It will be supported by TV ads featuring WWE Superstar The Miz throughout WWE programming and at live events, WWE social media properties and WWE Magazine.

“WWE has incredibly loyal and enthusiastic fans who flock to 7-Eleven for collectible beverage cups featuring their favorite Superstars and Legends,” said Jesus Delgado-Jenkins, 7-Eleven’s senior vice president of merchandising, marketing and logistics. “Couple this popular promotion with the intense heat gripping much of the nation, and we expect legendary Slurpee and Super Big Gulp drinks to be superstars themselves this month.”

“It is a testament to the branding power of both 7-

Eleven and WWE that has enabled us to undertake a third consecutive summer promotion,” stated WWE CMO Michelle Wilson. “We look forward to another successful partnership that drives WWE fans to 7-Eleven stores to collect cups and straws as part of their WWE memorabilia collection.”

## McCafe Beverages Continue to Boost McDonald’s Profits

Second quarter profits rise 15 percent, led by strong performance of McCafe beverages.

OAK BROOK, IL - McDonald’s second quarter profits spiked 15 percent thanks to strong performance of the company’s McCafe beverages, Bloomberg reports.

McCafe sales for the quarter jumped 29 percent from a year earlier, the company said.

“With the heat wave, a lot of people are going in and getting frozen drinks,” said Steve West, an analyst at Stifel Nicolaus & Co. in St. Louis. “McCafe is doing very well.”

The chain’s sales at restaurants open at least 13 months grew 5.6 percent globally during the quarter, more than 30 percent above estimates of 4.1 percent.

Last month, comparable store sales rose 7.7 percent worldwide, the largest monthly increase in nearly three years. In the U.S., the gain was nearly 7 percent, the largest gain since February 2008.

“The results were outstanding ? June obviously went extremely well for them around the world,” said Mark Kalinowski, an analyst at Janney Montgomery Scott LLC in New York. “They continue

to take market share.”

## Trending: Self-Service Yogurt Chains on the Rise

Do-it-yourself frozen yogurt stores are all the rage, with a growing number of stores allowing customers to serve themselves.

WASHINGTON - Do-it-yourself frozen yogurt stores are rising in popularity, with a number of new chains as well as existing stores converting formats, allowing customers to serve themselves,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Customers are attracted to the expanded choices that do-it-yourself offers, while many spend more than they would at traditional stores. “People are doing things on their own that they wouldn’t feel comfortable asking someone behind the counter to do,” said Tim Casey, CEO of Mrs. Fields Famous Brands LLC, parent of industry leader TCBY, which is set to open nearly 100 self-serve stores this year.

The self-serve stores operate on weight-based pricing, with the average self-serve ticket ringing up at \$6.32, compared to \$5.61 at a traditional store, said a TCBY spokesperson.

Research firm FRANdata said 17 of the 71 frozen-dessert franchises offer self-serve options. The transition to self-serve for TCBY comes as it closes its traditional shops. Last year, TCBY closed 33 stores and the company will shut 11 more this year, Casey said.

Casey said part of the new focus is a result of people wanting the freedom and control that self-

serve allows. "If calories are an issue or budget is an issue, they're in control."

Additionally, make-your-own cuts down on waiting for employees to handle an order, said Natasha Nelson, co-founder of self-serve chain Yogurtini, of Tempe, Arizona. "The lines are out the door at night, and the lines move quickly," she said.

Nelson said her shops need just two employees to cover a shift, which keeps labor costs relatively low.

Do-it-yourself is not without drawbacks. Start-up costs are generally higher, with the initial investment ranging from \$277,000 to \$521,000, compared with roughly \$234,000 to \$482,000 for a full-service shop. The higher cost is attributed to the yogurt machines, which can cost \$15,000 apiece (self-serve shops offer more flavors than traditional stores).

Additionally, as customers navigate a store to seek flavors and add-ins, stores must be slightly larger: 1,325 to 3,700 square feet, compared to 900 to 1,225 for counter-service models, FRANDATA said.

## Vermont Governor to Oppose State Soda Tax in 2012

The governor maintain that a state tax would be a mistake, as retailers would lose cross-border business to New Hampshire, New York and Massachusetts.

MONTPELIER, VT - Vermont Health commissioner Dr. Harry Chen, speaking on Vermont Public Radio, said Governor Peter Shumlin will oppose a proposal to tax soda and other sugar sweetened beverages during the 2012 Legislative session.

Chen said both he and the governor would support

a federal tax on those products but that it would be counterproductive for Vermont to impose a statewide tax.

Proponents of the proposal want to add a one-cent per ounce tax on sugar sweetened beverages, which would add roughly 60 cents to a two-liter bottle of soda.

"Both of us would be very supportive of a federal tax," Chen said. "I think we understand very easily that the fact that Vermont is not an island and whatever we decide to do in Vermont really has to play an impact in terms of tax policy in terms of businesses and the fact that we have such a large border with both New Hampshire, New York and Massachusetts."

Chen also said that while sugar sweetened beverages contribute to obesity, it is unfair to single them out.

"[I]f we're going to change the culture I have to say that I think it's going to be more than just a simple tax on one particular item," Chen said.

Peter Sterling, spokesperson for a Vermont coalition of health and consumer groups that supports the tax, said he is disappointed by the administration's position.

"We feel that if the administration was really concerned with decreasing health care costs and increasing people's health we would do the one thing we could do to decrease consumption of unhealthy products which is raise their price," he said, adding that the tax would generate about \$30 million a year, the majority of which could fund public education about obesity.

# Business News

## 상권뿐 아니라 인권까지 잡아먹는 불가사리 월마트

지난 16일 미국 아칸소주 벤틀빌 사우스웨스트 8번가와 월튼 대로의 교차로.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 100명의 월마트 직원들이 월마트 본사로 모여들었다. 일명 '월마트 캠퍼스'다. 시애틀, 마이애미 등 미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존중받고 싶다(For Respect)'고 쓰여있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존중받지 못했기에 이곳까지 찾아왔을까. 이들은 지역 방송 KNWA에 월마트가 자신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담당 부사장이 직접 나와 1시간가량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이들은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소매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둘러

싸고 미국이 시끄럽다. 뉴욕과 워싱턴에 월마트를 짓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소매업자들은 반발했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20일 월마트를 상대로 한 성차별 집단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월마트의 노동환경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가 하면 그 위력도 조명됐다.

지난해 4218억4900만달러의 매출액(포천 집계)을 올린 미국 내 기업 1위, 미국 식료품 판매 점유율 19%, 전 세계 노동자 수 약 200만명의 거대 기업 월마트는 무엇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걸까.

〈월마트 이팩트〉의 저자 찰스 피시먼은 미국 인구의 절반이 월마트 매장 반경 8km 이내에 살고 있고, 매일 1억명이 월마트를 찾는다고 밝혔다. 창고형 월마트 매장의 크기는 평균 9290㎡를 훌쩍 넘는다. 그래서 눈에 잘 띈다.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미국인은 월마트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월마트는 확장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월마트의 브루클린 진출을 둘러싸고 뉴욕에서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3일 뉴욕 시청 앞에 모인 월마트 진출 반대 시위자들은 월마트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1월 월마트가 7200㎡~1만800㎡ 규모의 매장 4개를 2012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월마트 없는 워싱턴(Wal-Mart Free DC)' 등을 조직해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월마트의 지역 유입 논리는 단순하다. '월마트

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자체 세금 수입이 늘어나며 소비자들에게 값싼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에 월마트 매장 4개가 들어오면 400개의 건설직을 포함해 일자리 1200개가 생기고, 지자체는 1000만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월마트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논리 역시 만만치 않다. 이스트 뉴욕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엘빈 페르난데스는 뉴욕 지역 신문인 데일리뉴스에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진 터에 가전, 신발, 옷 등 모든 것을 파는 월마트가 들어오면 소상공인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멕 배스커 미주리대 교수가 2005년 ‘경제학·통계학 리뷰’에 발표한 논문은 ‘한 지역에 월마트가 들어서면 초기 일자리 약 100개가 생산됐지만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월마트가 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소매상이 문을 닫았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생겨난 100개의 일자리는 결국에 가서는 50개만 남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월마트가 물건 값을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이 늘고 대중국 무역적자 폭이 커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전문가 로버트 스콧은 2007년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2001~2006년 사이 미국 내 약 20만개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월마트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월마트는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20억달러어치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대중 무역적자의 11.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월마트의 공세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월마트는 기존의 대규모 창고형 매장에서 탈피해 소형 매장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단한 식료품류와 소모품에 상품 아이템을 집중하고 크기를 10분의 1로 확 줄인 ‘월마트 익스프레스’를 올해 안에 추가로 40개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대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최근 또 한번 월마트가 주목받은 것은 성차별 집단 소송 때문이었다. ‘듀크 대 월마트’ 판결로 불리는 이번 소송은 2001년 베티 듀크, 크리스틴 콤포노스키 등



6명의 여직원이 월마트가 보수, 승진기회 등에서 구조적인 성차별을 해왔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일 연방 대법원은 10년을 끌어온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개별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들이 공통된 문제에 직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판사 4명은 월마트의 노동환경 자체는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월마트의 기업문화에 성에 따른 편견이 가득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여성이 시간제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직에선 33%만이 여성이었다”는 것이다.

〈소매혁명: 월마트는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 세계를 만들었나〉를 쓴 벨슨 리히텐슈타인 UC샌타바버라대 교수(역사학)는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번 성차별 소송 건은 월마트 기업문화의 핵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한다.

지점 관리인들에게 수백만명의 직원, 물건 운반자, 하급 관리자들을 더 쥐어짜라고 압력을 가하는 식의 권위적인 기업문화가 월마트의 문제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낮은 노동 비용과 높은 수준의 고용유연성을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월마트가 노조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법을 위반하면서도 수억달러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는 것이 리히텐슈타인의 주장이다.

소송 기각 이후 캘리포니아 콘코드 샘스클럽(월마트 계열사)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콤포노스키는 “내일 다시 일터로 돌아가

서 사람들에게 내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릴 것" 이라고 말했다.

### TV리포트

몸을 청결하게 해주는 욕실이 오히려 불쾌함을 안긴다. 욕실 청소를 아무리 해도 깨끗해 지지 않는다. 그 해결책으로 식초가 주목받고 있다면?

욕실 청소는 누구에게나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특히 변기 속 찌든 때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물에 섞은 식초를 변기에 수시로 뿌려준다.

식초 속 수소 이온이 물을 산성으로 바뀌며 들러붙은 때 제거에 효과적이다. 또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악취에도 도움을 준다.

욕조의 변색에는 린스를 이용한다. 종이 타월이나 마른 수세미에 린스를 묻혀 닦으면, 코팅 효과를 볼 수 있다. 혹은 베이킹소다 섞은 물로 색을 환하게 바꿀 수 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뜨거운 물 1리터에 식초 한 컵을 섞어 30분 동안 대기한다. 이와 함께 베이킹소다 2~3스푼을 배수구에 부으면 살균세척과 악취제거에 특효다.



## 재외동포재단 제주 이전 해외 한인들 “반대” 확산

내년으로 예정된 재외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을 앞두고 해외 동포 사회에서 이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제주 이전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 말까지 제주도 서귀포시로 옮기게 된다. 다만 13명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해 동포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 이전 반대의 뜻은 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2011 세계한인 회장대회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회에 참가한 66개국 380명의 한인회장, 임원들은 재외동포재단의 제주도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주 이전 때 재단 방문이 어렵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취지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이에 동조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재외동포재단이 2012년 제주도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불편과 장애가 초래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재검토해 이전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도로 이전하게 되면 ▲동포들의 재단 방문에 큰 불편이 야기되고 ▲국내 관계기관 인사 방문과 교류에 애로가 커지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도 23일 열린 의원 총회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동포들이 재외동포재단을 방문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단의 서울 잔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계획의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시한 보름앞...

## 美 해법 못찾으면 세계경제 치명상

### 국가부채 증액 시한 초읽기

미국은 지금 국가부채 증액 문제로 난리다. 눈덩이처럼 늘어



1% 흑자였으나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에는 3.2% 적자로 반전됐다. 1인당 공공부채 역시 이 기간 중 1만3,000달러에서 1만9,000달러로 50% 가까이 올랐다.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미 재정이 완전히 바닥난 것이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을 쏟아부은 것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 법무부, 17일 출국 1년 경과 후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 허용

중국동포들의 최대 관심사이던 방문취업 후속안이 드디어 발표됐다.

법무부는 8월 17일 “2007년 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55세 미만인 동포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 동포들은 다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55세 미만인 동포로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취업한 동포들은 6개월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동포들은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횡수에 관계 없는 1회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약 30만명의 동포들이 2012년부터 매년 5~8만명씩 순차적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며 “이에 따라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고려해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주의할 점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릴 경우 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입국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 동포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만 한다.

법무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추후에 공지할 계획이다.

당시 소송에 적극 대응해 승소를 이끌어냈던 안영래 법무사

는 “업소 출입구에 인도견 또는 애완동물 출입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을 경우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가능하긴 하다”며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4,000달러에 달하는 정신적 피해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변호사는 “장애인 인도견이나 의료지원용 애완동물은 일반적으로 식당 등 업소 출입이 허용된다”며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사람들이 데려온 동물이 의료지원용인지를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푸드스탬프 사기 또 적발

화이트 센터의 아시안 업주 2명이 푸드 스탬프를 현찰로 바꿔주는 등 푸드스탬프를 사기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지난 13일 기소되었다.

검찰은 마그노리아 진(52)과 레 손황(35)이 식품만 사게 되어 있는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일부 교환해주고 나머지를 착복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레가 운영하고 그로서리 업소는 불과 1년 동안 100만불이나 되는 푸드 스탬프 페이먼트를 받았다.

단속반은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과 버블티에 고객으로 위장해 여러차례 갔는데 업소측은 푸드 스탬프를 가진 위장 단속반원에게 얼마의 현금을 요구하느냐고 묻고 카드 정보를 받은 후 현금을 주었다. 당국은 지난번에도 시애틀 차이나 타운 업소들에게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푸드 스탬프 사기 행위를 단속해 4명을 기소했었다.

차이나 타운에서 한약방과 그로서리를 운영하고 있는 엘사 켈의 경우 푸드 스탬프 사기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는데 150만불을 배상하고 14만불의 현금과 2대의 고급 차량도 몰수 당하게 되었다.

그녀는 2개의 스토어에 불과 10만불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만불 이상의 푸드 스탬프를 USDA에 제출했다. 당국은 비즈니스들이 푸드 스탬프 카드를 받고 반값을 현금으로 준 후 정부에는 모든 액수를 받아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감사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 줄  
회계사를 원하십니까?

올바른 회계사의 선택은  
**사업의 번영과  
안전**의 지름길입니다.

각종 절세 방안을 통해  
최대한의 **세금 절감**을  
원하십니까?

# YSONG & ASSOCIATES, LLC **송영** 공인회계사 YOUNG **송영** C.P.A. M.S.T



공인회계사 **송영**

Drexel 대학 세법 석사 졸업 (MST)  
회계 업무 및 회계 사무실 manager 경력 15년  
(CBIZ Accounting, Tax & Advisory 등)

## 세금 보고 및 세무 감사 대행

- 회계 감사 Service
- Audit, Review, Compilation
- 사업체 매매 Tax Planning
- Payroll Service
- 영리 및 비영리 단체(교회) 설립
- 각종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 투자, 연금, 유산 및 노후 대책 Planning
- 비즈니스 경영 전략 Consulting



**TEL: 610-449-8824 CELL: 610-420-6150**  
8908 West Chester Pike, Upper Darby, PA 19082  
E-mail: youngsongcpa@aol.com Fax: 610-449-7633



쌀은 산소다

#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와 함께 하는 쌀은 산소다 Rice O<sub>2</sub> 캠페인

[아침밥을 먹으면 386g의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 세계 각국 치열한 인삼전쟁...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고려인삼, 효능 우수하지만 세계시장 점유율 1.4% 그쳐  
해외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 공연·인삼 캐기 등 이벤트도

세계는 지금 '인삼전쟁' 중이다. 전 세계 인삼시장 규모는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커지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가 인삼 생산을 늘려 세계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선 '고려인삼' 종자를 가져다 대규모 재배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1994년부터 인삼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치열한 인삼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9월 개막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대회장 마당에 초대형 인삼주(人蔘酒) 병으로 만든 인삼 상징 조형물이 세워져 눈길을 끌고 있다.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높이 2m, 직경 80cm, 인삼주 3000L의 초대형 인삼병 3개를 채워 대형 인삼 모형의 몸체를 이루게 했다. /신현중 기자 shin69@chosun.com 하지만 국내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인삼은 1990년대 이후 저가 외국산 범람으로 고전하고 있다. 고려인삼은 미국삼 19종, 중국삼 29종에 비해 사포닌 수가 38종으로 많아 효능이 우수하지만 2008년 기준 고려인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고작 1.4%에 그치고 있다. 농산물 수출 가운데 인삼산업 비중도 2006년 4.4%에서 2009년 3.6%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속에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인삼의 종주지 충남 금산에서 침체된 국내 인삼산업을 재도약시킬 발판이 마련된다.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2011 금산 세계 인삼엑스포'를 통해서다.

## 침체된 인삼산업 재도약 위해 세계시장 공략 중국산·캐나다산 다 비켜라, 고려인삼 나가신다

32일 동안 열리는 이번 엑스포의 주제는 '생명의 뿌리, 인삼'. 인삼엑스포조직위는 단순히 금산의 인삼산업 진흥을 넘어 국내 전체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새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2006년 엑스포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행사지만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흥행을 이끌 전시·체험 코너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조직위는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고려인삼의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차별화시켜 외국 인삼과 한판 승부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미개척 시장인 아프리카·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확대

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고려인삼 효능과 진면목을 오감(五感)으로 체험하는 유익한 프로그램과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삼제품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조상원 전략기획실장은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선 주요 소비층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를 기초로 한 생산, 연구, 업계 간 협업 유도, 효과적 홍보·마케팅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 비즈니스 기능 강화, 건강·즐거움도 선사

한찬희 조직위 사무총장은 "건강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축제이자 침체된 인삼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라며 "세계인이 주목할 명품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엑스포조직위는 관람객 목표를 229만명으로 잡고 막바지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엑스포는 개최기간이 2006년(24일) 때보다 8일 더 늘었고, 총사업비도 135억원으로 5억원 늘어 규모가 커졌다. 2006년 행사가 문화축제 성격이 강했다면 올 행사는 비즈니스 기능이 대폭 강화된 산업박람회로 치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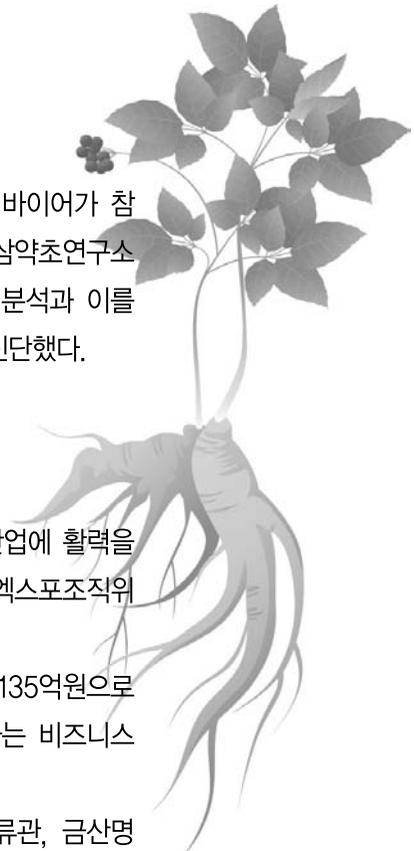
생명에너지관, 고려인삼관, 입체영상관, 건강미소관, 인체탐험관, 생명산업교류관, 금산명 의관 등 7개 전시관과 4개 체험장에서 모두 59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흥미진진한 볼거리 가득... '인삼의 모든 것' 한눈에

주제관인 '생명에너지관'에선 발전하는 인삼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한다. 작년 2월 부산 원광사에서 부처님 복장(腹藏) 유물과 함께 출토된 1000년 묵은 인삼 실물이 전시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인삼이 인체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전하는 '인체탐험관'에선 장기 모형 공간에서 퍼즐 맞추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린다. 감칠맛을 더할 이벤트도 풍성하다. 주제공연 '천하장사 삼동이'를 비롯해 해외 민속 공연, 인삼 캐기, 인삼요리축제 등 51개 이벤트가 펼쳐진다. 1만2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됐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041)750-4800

[www.insamexpo.or.kr](http://www.insamexpo.or.kr)



# [제철, 이맛] 新 보양식 토마토

리코펜 성분이 암·노화 방지, 남성 정자 활동 왕성하게 해  
볶아 먹는 등 익힐수록 체내흡수율 더 높아져

복(伏)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너도나도 보양식(補養食)을 찾는 계절이다. 보양식 하면 당연히 삼계탕, 개고기, 장어 같은 육(陸)·해(海)·공(空)의 고기들을 떠올린다. 그러나 전문가 중에서는 "이런 고단백 보양식은 고기를 자주 먹지 못하던 과거의 보양식"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요즘처럼 '영양 과잉' 시대에 이상적인 여름 보양식은 바로 토마토"라고 말한다. 토마토는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이 제철이다.

## 특히 남성에게 좋습니다

왜일까? 토마토에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리코펜(lycopene)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암과 노화를 막아준다. 리코펜은 열에 강하고 지용성이라 기름에 볶아 먹으면 체내흡수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토마토는 올리브오일 등 식용유에 익혀 먹는 게 낫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혁명 후 집권한 크롬웰 정부가 "토마토에 독이 들었다"는 루머를 퍼뜨린 일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토마토를 정력제로 생각해 많이 먹었던

토마토는 껍질이 탄력 있고 색이 짙은 것을 고른다. 꼭지가 시들지 않아야 좋다. 꼭지 부분에 노란색 별모양이 있고, 이 별모양이 클수록 당도가 높다. 표면이 주글주글하지 않으면서 윤기가 흘러야 신선하다.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고른다. 너무 크지 않고 무게가 200g 안팎이 상품(上品)이다.





토마토에는 힘을 내는 데 필요한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리코펜(lycopene)은 활성산소를 억제해 암과 노화를 막아준다. 리코펜은 열에 강하고 지용성이라 기름에 볶아 먹으면 체내흡수율이 높아진다.

게 이유였다.

쾌락을 금기시하는 청교도들로서 '도덕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토마토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해 이런 거짓말까지 퍼뜨렸던 것. 그런데 몇 해 전 영국에서 토마토수프를 매일 먹은 남성들의 경우 정액 속 리코펜 수치가 증가하면서 활동력이 왕성한 '수퍼 정자'가 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크롬웰 정부의 걱정에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셈이다.

### 토마토도 버젓한 우리 음식!

토마토는 모두가 알겠지만 '일년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일년감은 국어사전에 등재된, 토마토의 한글 이름이다. '일 년을 사는 감'이라는 뜻이다. 옛 문헌에는 한자 이름 '일년시(一年柿)'라고 나온다. 토마토는 한국에 소개된 역사가 꽤 길다. 조선시대 유학자 이수광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 토마토를 '남만시(南蠻柿)'라고 소개했다. '남쪽 오랑캐 땅에서 온 감'이라는 뜻이다. 지봉유설이 나온 건 1614년. 그러니 그전에 이미 토마토가 한국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토마토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한국에 소개된 작물이 있다. 바로 고추다. 고추는 금세 김치, 고추장 등 한국 음식의 중요한 재료이자 양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반면 토마토는 아직까지 한글 이름이 낯설만큼 한국인의 밥상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정혜경 교수는 "문헌을 아무리 뒤져도 토마토를 이용한 음식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토마토를 채소가 아닌 과일로 여긴데다 감자처럼 구황식물로 먹기도 어려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고추는? 정 교수는 "고추가 들어오기 전 매운맛을 낼 때 주로 사용하던 산초에 관한 기록이 문헌에 매우 많은 걸 보면 한국인은 예부터 매운맛을 선호해왔다"면서 "고추는 이러한 한국인 입맛을 사로잡은 듯하다"고 했다.

### 토마토, 채소가 아니라 과일!

토마토라는 이름은 멕시코 원주민 아스텍(Aztec)족의 말 '토마틀(to matl)'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속이 짝 찬 과일(plump fruit)'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토마토는 원래 과일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요즘은 대개 채소로 알고 있다. 토마토의 맛 때문이다. 토마토는 과일치곤 당도가 매우 낮다. 전체 무게에서 당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 지나지 않는다. 양배추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일반적인 과일에는 별로 없는 글루탐산(glutamic acid)이 잘 익은 토마토의 경우 전체 중량의 0.3%나 된다. 글루탐산은 감칠맛의 주요 성분이다.

유럽 등지에서 수백 년에 걸쳐 토마토를 먹다 보니 음식과 같이 또는 소스로 만들어 곁들이면 음식의 맛이 더욱 풍부해지고 깊어짐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요리연구가 양정수씨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토마토케첩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과일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토마토는 과일보다는 채소로 인식이 굳어졌다는 게 음식 학자들의 추론이다

### 맛있는 토마토 고르는 법

토마토는 껍질이 탄력 있고 색이 짙은 것을 고른다. 꼭지가 시들지 않아야 좋다. 꼭지 부분에 노란색 별모양이 있고, 이 별모양이 클수록 당도가 높다. 표면이 쭈글쭈글하지 않으면서 윤기가 흘러야 신선하다. 단단하고 묵직한 것을 고른다. 너무 크지 않고 무게가 200g 안팎이면 상품(上品)이다. 냉장고보다는 섭씨 15~18도 정도로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면 천천히 빨갱게 익는다. 빨간색이 짙을수록 몸에 이로운 리코펜 성분도 증가한다.



# 온몸의 피로 풀어주는 '족욕' 하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하루 피로가 말끔히 가신다. 발뿐 아니라 온몸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족욕에 대해 알아보자.

## 》 족욕이 좋은 이유

발 피부는 두껍고 건조해 묵은 각질을 제때 없애지 않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진다.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무좀 등 세균성 질환이 발생한다. 따뜻한 물은 소독효과가 있어 발에 쌓인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 족욕은 피로해소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발이 따뜻해지면 발끝에 모인 피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다. 족욕으로 혈류가 좋아지면 높은 혈압이 떨어지고 뭉친 근육도 풀린다.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빠져 나와 신체 활동 역시 좋아진다. 초이스피부과 최광호 원장은 “족욕은 1주일에 1~2번 하면 발의 혈액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몸 전체 피로가 풀린다”고 말했다.



## 》 족욕 이렇게 하세요!

### 1 우선 물 한잔 마시고 시작

족욕 전에 물을 한 컵 마신다. 족욕을 하면 땀이 나는데 몸속의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한다. 발을 깨끗하게 씻고 복사뼈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물높이를 맞춘다. 중간에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보충한다. 38~40℃의 따뜻한 물에 아로마오일을 몇 방울 섞는다.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오일 성분이 스며들어 한결 고운 피부를 만들어 준다.

### 2 발을 담근 채 지압이나 마사지

족욕할 때 발가락을 꼬지않고 발 운동을 병행하면 피로가 더 잘 풀린다. 따뜻한 물에서 20분 정도 해야 효과적이다. 피부가 부드러워져 묵은 각질을 제거하기가 훨씬 쉽다.

### 3 깨끗하게 마무리

족욕이 끝나면 발가락 사이까지 물기를 깨끗이 닦는다. 물기가 남으면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한다. 족욕 후 보습크림과 로션을 충분히 발라 영양과 수분을 공급한다. 발가락에서 발등, 발바닥에서 발끝을 향해 쓸어 주듯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족욕은 하루 한 번, 20분 정도, 몸에 축축하게 땀이 날 정도의 시간이 적당하다. 운동과 식사 후에는 최소한 1시간 뒤 하는 것이 좋다.

## 》 천연재료를 사용해요

족욕 시 발을 움직이거나 발바닥을 손으로 주물러 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숙면효과까지 얻는다. 최광호 원장은 “물에 장미잎, 녹차가루, 꿀 등 천연재료나 아로마오일을 넣으면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발냄새가 심하고 무좀이 있으면 소량의 소금을 물에 푼다. 마시고 남은 녹차 티백은 훌륭한 입욕제”라고 말했다. 부기가 심할 때는 따뜻한 물에 페퍼민트 오일 2방울을 넣거나 과일식초를 3방울 정도 떨어뜨린다. 좋은 천연재료를 입욕제로 활용하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 뿐 아니라 특유의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킨다. 피곤한 발에는 티트리나 라벤더 오일, 땀나고 냄새나는 발에는 라벤더·박하·로즈메리·사이프러스 등의 오일이 좋다. 쭉 따뜻한 성질이 있어 몸이 차고 저린 사람에게 좋다. 말린 쭉 한 움큼을 먼주머니에 넣어 뜨거운 물에 잘 우린다. 굴겉질 근육의 통증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어 어깨걸림과 근육통에 좋다. 피부탄력을 높이고 상큼한 향기가 난다.





#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Hospital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종합검진 예약 및 상담전화 +82-2-2290-9550, 9551, 9552  
<http://imc.hanyang.ac.kr>  
E-mail: hospital@hmc.hanyang.ac.kr

## KAGRO회원 의료지원 협력병원 종합검진비 20% 할인

### ◆ 종합검진 주의사항

1. 검진예약은 검진시행 일주일전에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진 전날 음주, 과식, 과로를 피하시고 저녁은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일체의 음식물(껌, 담배포함) 섭취를 금합니다.
3. 협압약, 심장약,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고객은 검진 당일 오전 6시경 최소량의 물로 복용하십시오.
4. 당뇨약을 복용하는 고객은 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5. 여성의 경우 검사전일 부분관계 및 질세척을 금하여 생리후 3-4일 결과 후가 좋습니다.

## KAGRO회원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내용

1. 협약기간 : 2009년 9월 24일 ~ 2012년 9월 23일
2. 외래 / 입원 진료비 -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암 검사 등 각종 검진 및 치료 포함)
3. 종합 검진비 : 검진비의 20% 감면
4. Valet Parking 무료 제공
5. 외래, 입원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직원 배치
6. 장례식장 이용 시 빈소료 (20% 감면), 안치료와 영정사진 제공 (무료)
7. 종합검진 및 진료와 연계되어 President Hotel (소재지 : 서울시청 앞) 이용 시 객실료 35% 감면
8. 문의전화 : 한양대학교 국제병원 행정팀 +82-2-2290-9554, 9567

### 최신식 의료장비 현황



MRI



PET-CT



64슬라이스-MDCT



초음파기



daVinci(로봇수술)



SPECT

## 제 11 대 집행부 명단

회 장	한 용 웅	Delaware
부회장(서부)	배 윤 향	California
부회장(중부)	김 세 기	Chicago
부회장(동북부)	이 창 희	Philadelphia
부회장(동남부)	차 명 학	Washington,DC
부회장(Canada)	김 영 필	Canada

### 이 사

이사장	허 성 칠	NewYork
부 이사장	한 영 웅	Harrisburg
부 이사장	복 종 한	Canada
부 이사장	케빈 최	Arizona
부이사장	나 기 환	Georgia

### 본부 임원

총무 부장	유 인 현	Philadelphia
섭외 부장	최 명 호	Georgia

### 본부 감사

감 사	이 승 수	Philadelphia
감 사	홍 진 섭	Washington,DC

### 고 문

고 문	김 기 옥	Washington,DC
고 문	김 양 일	Los Angeles
고 문	전 기 풍	Philadelphia
고 문	김 치 현	Los Angeles
고 문	구 군 서	New York
고 문	김 주 한	Oregon
고 문	김 현 주	Maryland

## 스 폰 서

Miller Brewing Company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Inc

송영공인회계사

Rice O<sub>2</sub> 캠페인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 KAGRO Photo Gallery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11대 회장 한용웅이 걸어온 길

청와대 방문



# 2006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 백악관 방문



# 경상북도 MOU 체결



# 2007

## 2009년 한용웅 회장 11대 총연 회장으로 취임



## 멕시코 কেন쿤/ 한용웅회장 총연 회장 당선



# 2009

# 42차 미주총연

# 2009



## 제6차 한상 운용 위원회 참석

# 2010



## 동부지역 회장단 골프대회



# 제9차 한상 대회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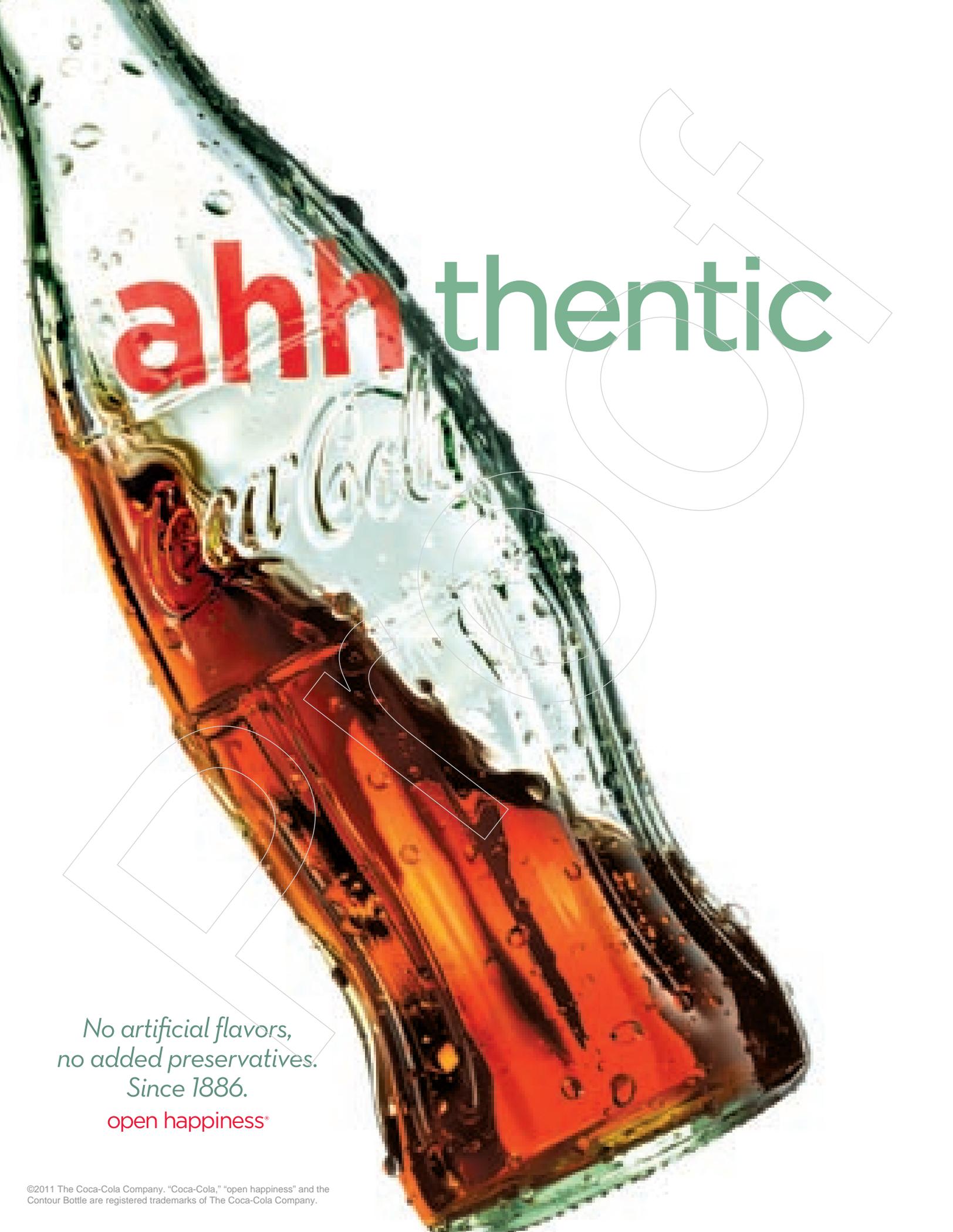
# 2010



# 제44차 총연 \_ 도미니카 공화국

# 2011





ahh

thentic

*No artificial flavors,  
no added preservatives.  
Since 1886.*

open happiness®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